

2021 기준 외식업 경영실태 주요 조사 결과

박기환, 홍연아, 주준형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개요

- 『외식업 경영실태조사』는 승인통계로서 모집단은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으로 등록되어 있는 727,014개 사업체 명부 활용
 - ▶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층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는데, 모집단 명부를 추출틀로 사용하였으며, 목표 표본 수는 3,000개 사업체로 설정
 - ▶ 조사는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3,198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
- 조사 완료된 외식업체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식과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과 같은 일반 음식점업 비중이 51.6%로 과반 이상이며, 일반 음식점 외의 업종이 48.4%를 점유

표 1. 조사 대상 외식업체 업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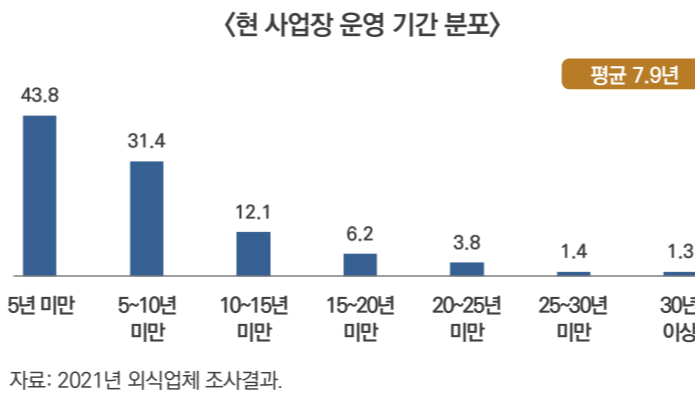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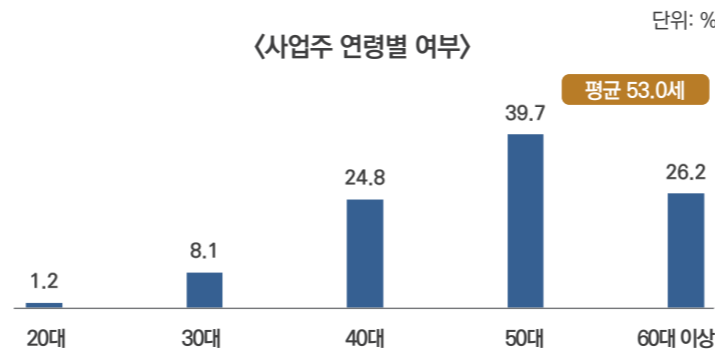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한식	45.6	44.9	44.2	43.6
중식	3.5	3.6	3.5	3.5
일식	1.5	1.7	1.9	1.9
서양식	1.7	1.7	1.8	1.9
기타 외국식	0.4	0.5	0.6	0.7
기관 구내식당업	1.6	1.6	1.6	1.5
출장·이동 음식점업	0.1	0.1	0.1	0.1
제과점	2.7	2.5	2.7	3.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4	2.6	2.7	2.8
치킨 전문점	4.9	5.5	5.2	5.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7.3	6.1	6.1	6.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1	1.0	1.0
주점업	18.2	17.5	16.8	15.8
비알코올음료점업	10.1	10.7	11.8	12.9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 외식업체 사업주 연령은 평균 53세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9.7%, 60세 이상 26.2%, 40대 24.8%인 반면에 30대 이하는 9.3%에 불과
- 현 사업장의 운영 기간은 5년 미만인 43.8%, 5~10년 미만 31.4%로 10년 미만이 75% 이상을 점유하는 등 평균 8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조사
 - ▶ 즉, 사업주 연령은 50대 이상이 많이 분포하지만,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편

그림 1. 외식업체 사업주 연령별 및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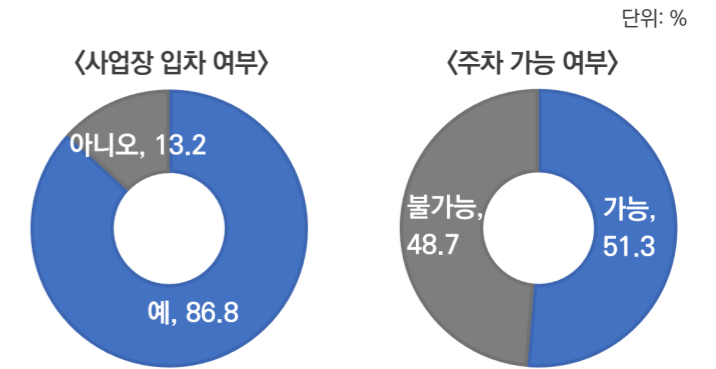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 중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은 86.8%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세 형태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임차보증금은 평균 2,987만 원, 월세는 184만 원으로 조사
 - ▶ 한편, 임대계약 기간은 2.3년이며, 사업장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207만 원으로 파악

- 주차가 가능한 업체 비중은 51.3%이며, 이 가운데 일반 음식점의 경우 주차 가능 업체가 59.9%, 이 외의 업종은 42.1%로 나타나 일반 음식점 비중이 더 높은 편
 - ▶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87.0%, 출장·이동 음식점업 68.4%, 중식 61.6%, 한식 60.6% 등으로 평균보다 높지만,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34.6%로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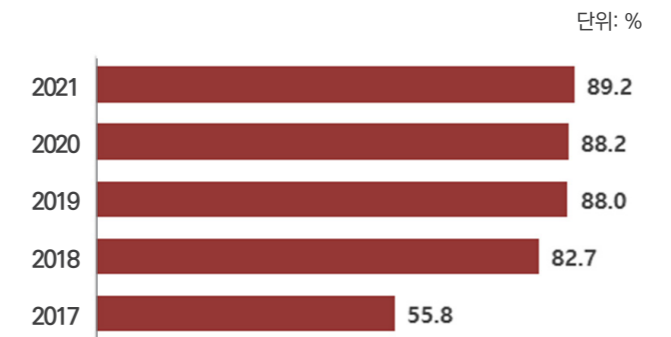
그림 2. 외식업체 사업장 임차 및 주차 가능 여부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2017년 55.8%를 나타낸 이후 2018년 82.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89.2%로 대부분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 외식 사업장의 필수 장비로 정착

그림 3.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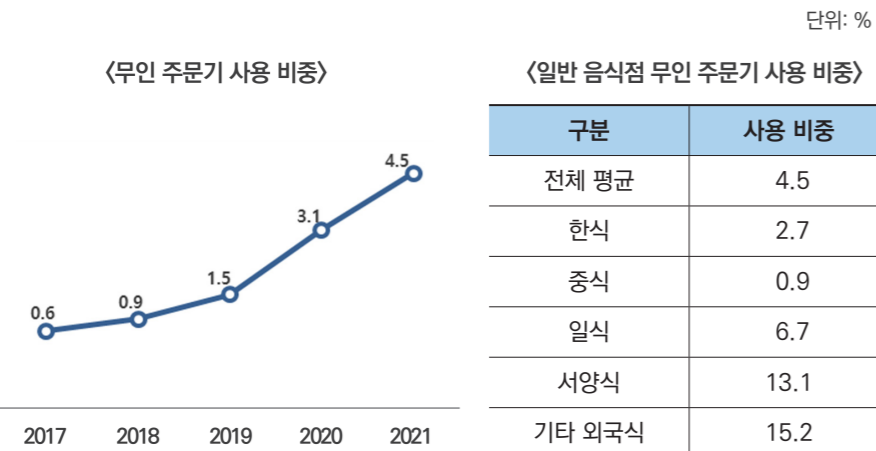
자료: 외식업체 조사결과 각 연도.

- 외식업체 가운데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비중은 4.5%에 불과하지만, 매년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객이 불편해서' 35.4%, '비용이 부담되어서' 17.9%,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17.3%, '인력이 충분해서' 15.3%, 기타 14.2% 등의 순

- 일반 음식점의 업종별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차이가 있는데, 한식업과 중식업은 1~3% 수준인데 비해 서양식 음식점은 13.1%,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은 15.2%로 타 업종보다 크게 높아

그림 4.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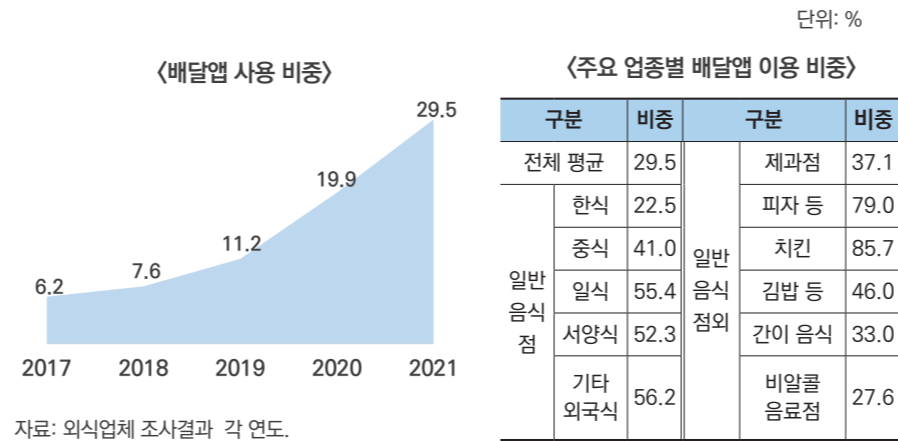
자료: 외식업체 조사결과 각 연도.

영업 및 근로 실태

-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2017년 6.2%에서 2019년 11.2%로 5.0%p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 선호로 2020년 19.9%, 2021년에는 29.5%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3 정도가 이용 중
 - ▶ 업종별로는 치킨전문점이 85.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79.0%로 대부분 배달앱 이용하고 있으나, 한식업의 경우 22.5%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낮은 상태
 - ▶ 한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27만 원 내외
-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18.5%이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외국식 음식점이 47.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7.2%, 치킨전문점 45.6%로 과반에 육박하는 반면, 한식업은 15.9%로 평균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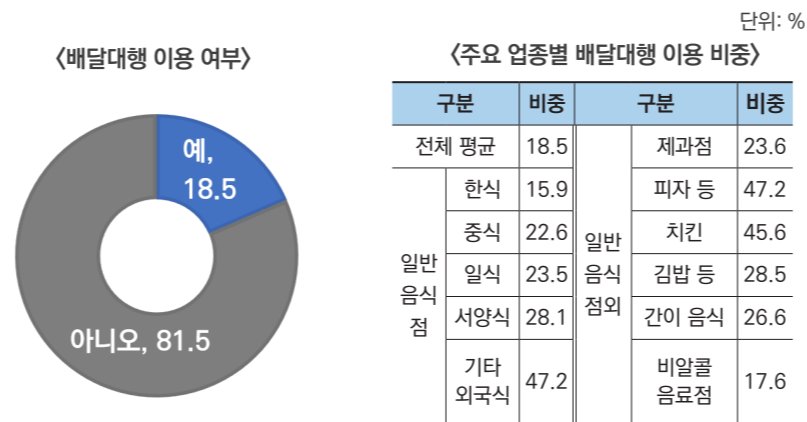
- ▶ 월평균 배달대행 비용은 90만 원 내외이며, 50만 원 이상이 44.3%, 15만~50만 원 미만 37.3%, 5만~15만 원 미만 12.0%, 5만 원 미만 6.4%의 비중으로 분포

그림 5.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



자료: 외식업체 조사결과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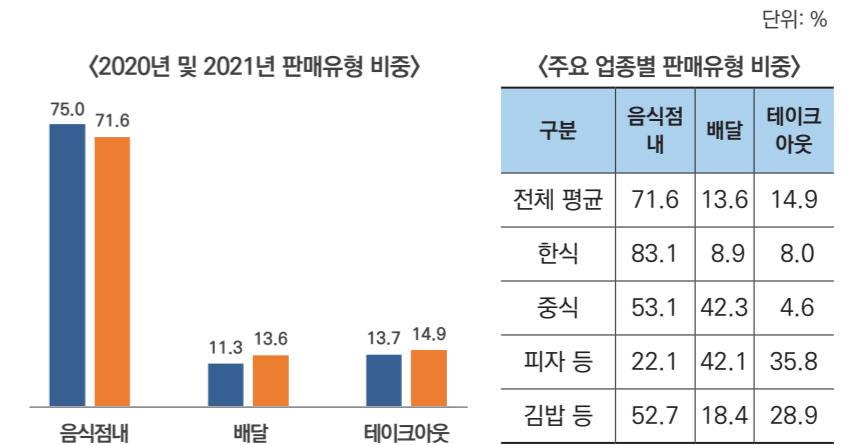
그림 6. 외식업체의 배달대행 이용 여부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매유형으로는 음식점 내 판매가 7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75.0%에 비해 줄어든 반면, 배달과 테이크아웃은 증가하여 비대면 방식 등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
 - ▶ 주요 업종별로 음식점 내 판매유형 비중은 한식업의 경우 83.1%로 평균 이상으로 크게 높지만, 중식은 53.1%, 김밥 및 간이 음식점업 52.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22.1%에 그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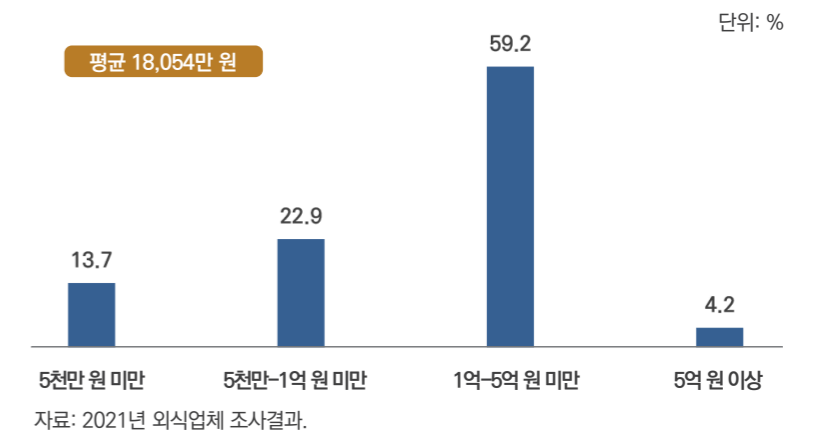
그림 7.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매유형 비중



자료: 외식업체 조사결과 각 연도.

- 외식업체의 2020년 매출액은 평균 1억 8천만 원 내외이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5억 원 미만이 전체의 59.2%, 5천만~1억 원 미만 22.9%, 5천만 원 미만 13.7%, 5억 원 이상은 4.2%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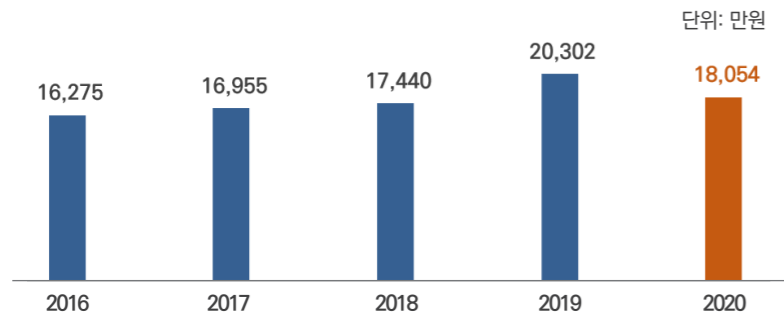
그림 8. 외식업체의 매출액 분포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 매출액은 2016년 1억 6천만 원에서 2019년 2억 원 내외로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2019년 대비 11.1% 감소
- 외식업체 전 업종에서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일반 음식점업 중에서는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의 매출액 감소폭이 컸으며, 일반 음식점 이외의 경우 학교 등에서의 비대면으로 급식이 줄어 기관 구내식당업의 매출 감소가 컸던 것으로 조사

그림 9. 외식업체의 매출액 추이



자료: 외식업체 조사결과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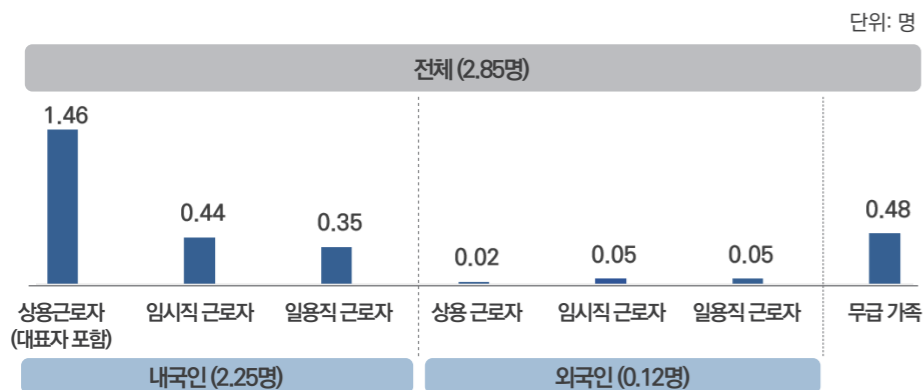
표 2. 외식업체 업종별 20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증감률	2019	증감률
한식	-6.6	제과점	-5.2
중식	-6.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3
일식	-8.0	치킨 전문점	-6.6
서양식	-40.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5
기타 외국식	-40.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8.4
기관 구내식당업	-31.9	주점업	-18.6
출장·이동 음식점업	-9.0	비알코올음료점업	-7.9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2.9명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무급가족 포함)이 95.8%, 외국인은 4.2%로 내국인이 대부분을 차지
 - 내국인 중에서는 상용근로자(대표자 포함)가 64.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임시직 근로자 19.6%, 일용직 근로자 15.6%의 순

그림 10.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내국인이 9.6시간, 외국인은 9.0시간으로 내국인이 더 많은데, 이는 대표자의 근무시간이 9.7시간으로 상용근로자(9.0시간)보다 많기 때문
 - 임시직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이 내국인 6.9시간 외국인 8.5시간으로 나타나 외국인 임시직 고용 시간이 더 길지만, 일용직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무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표 3. 외식업체의 근로형태별 1일 평균 근무시간

구분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계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시간	9.6	9.7	9.0	6.9	6.0	9.0	8.5	5.5	9.1	8.8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 외식업체의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7.9%로써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2.1%이며, 영업비용에서 식재료비 및 고용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7%를 점유
 - 한식업 등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업의 경우 영업비용이 전체 매출액 대비 88.3%를 차지하여 영업이익은 11.7%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
 - 일반 음식점도 식재료비가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고용 인건비를 합하면 58.1%로 나타나 60%에 근접

표 4.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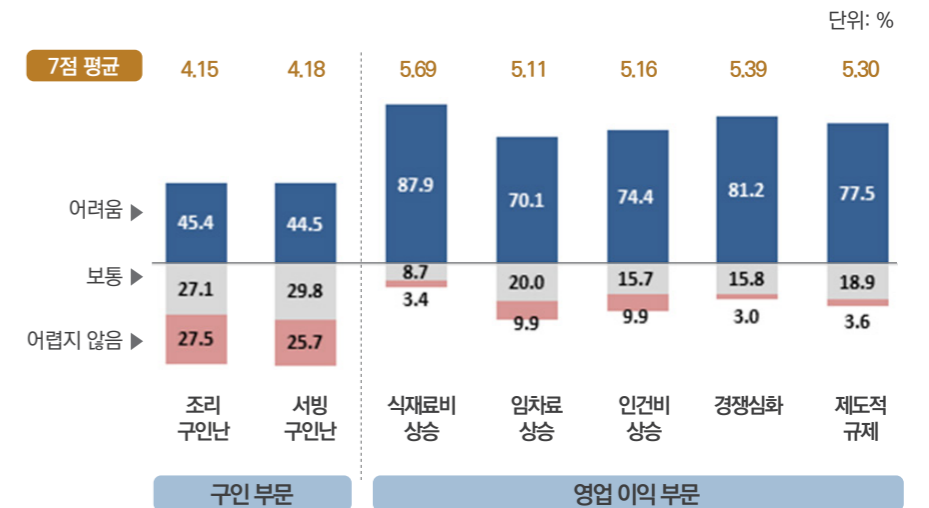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비용 구성비율 (%)							영업이익
			식재료비	고용인건비	임차료	세금	가족종사자인건비	대표자인건비	기타	
전체	100.0	87.9	36.3	13.6	9.6	6.1	1.8	14.4	6.1	12.1
일반 음식점	100.0	88.3	37.5	13.8	8.6	6.2	2.1	13.9	6.2	11.7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애로사항 및 의향

- 외식업체가 경영상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으로 7점 척도 기준으로 5.69점이며, 다음이 '경쟁 심화' 5.39점, '제도적 규제' 5.30점, '인건비 상승' 5.16점, '임차료 상승' 5.11점, '홀서빙 및 카운터 구인난' 4.18, '조리(주방) 구인난' 4.15점의 순
 - 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은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외식업체는 구인 부문보다 영업이익 부문에 더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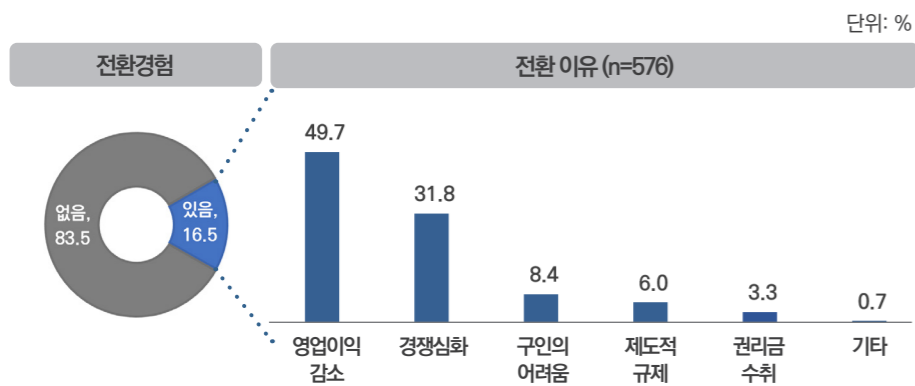
그림 11. 외식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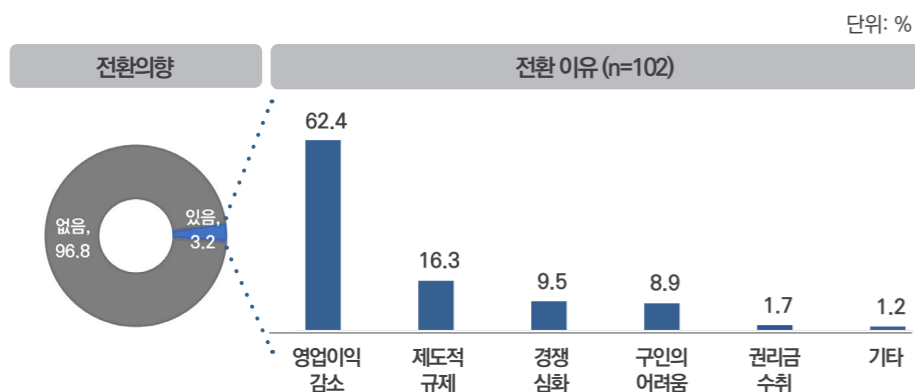
- 외식업 종사 이후에 업종 전환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16.5%로 나타난 가운데, 전환한 가장 큰 이유로는 영업이익 감소가 49.7%로 과반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경쟁 심화 31.8%, 구인의 어려움 8.4%, 제도적 규제 6.0% 등으로 조사
- 향후 2년 내 업종 전환 의향이 있는 외식업체 비중은 3.2%로 높지 않아 당분간 동종 업종간 또는 타 업종간 전환 실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 감소가 62.4%의 비중으로 가장 높아

그림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그림13. 향후 2년 내 외식업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자료: 2021년 외식업체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외식업체 사업주 연령은 평균 53세,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7.9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며, 사업장의 임차 비중은 86.8%로 높은 가운데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세 형태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
 - 주차 가능한 업체 비중은 평균 51.3%로 과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포스단말기는 89.2%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 외식 사업장의 필수 장비로 정착
 -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비중은 4.5%에 불과하지

만, 매년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방식이 증가하면서 2021년 29.5%로 2017년 6.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배달대행 이용 비중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매유형은 음식점 내 판매가 월등히 높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음식점 내 판매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배달과 테이크아웃은 증가
- 매출액은 2016년 1억 6천만 원에서 2019년 2억 원 내외로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0년은 2019년 대비 11.1% 감소한 1억 8천만 원 수준
-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2.9명으로 대부분 내국인(무급가족 포함)이며, 내국인 중에서는 상용근로자(대표자 포함)가 64.9%, 임시직 근로자 19.6%, 일용직 근로자 15.6%의 순
-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상용근로자에 포함된 대표자의 근무시간이 길어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지만, 임시직의 경우 외국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외식업체의 영업이익은 12.1%이며, 영업비용의 경우 식재료비 및 고용 인건비의 비중 56.7%를 점유하여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여부가 업체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이 때문에 외식업체는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비 상승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인건비 상승 등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 코로나19는 전 산업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외식업계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았던 것(평균 매출액 전년 대비 11.1% 감소)으로 나타나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외식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배달앱이나 배달대행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과 편의성 추구 경향으로 배달앱 등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수료의 적절 수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외식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고용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업체 대표나 가족들의 근무 시간을 늘려 영업을 영위하는 중
 - 인력 수급이 원활하도록 고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무인 주문기의 개발·보급으로 외식업체 경영 안정화 도모

저자정보

- 박기환 선임연구위원(061-820-2331), kihwan@krei.re.kr
- 홍연아 부연구위원(061-820-2271), yeonahong@krei.re.kr
- 주준형 연구원 (061-820-2016), jhjoo@krei.re.kr